

北韓言論의 本質에 관한 考察*

劉 載 天

I. 북한언론의 기본 개념

II. 북한 언론의 사명과 기능

III. 북한언론의 기본 성격

I. 북한 언론의 기본 개념

1. 북한 언론의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에서 간행된 북한 관계 자료나 단행본 또는 논문들에 따르면 북한은 북한 공산주의 언론의 기원을 1936년 12월 1일에 창간된 '조국광복회'의 기관지였던 <3·1월간>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 신문의 역사는 노동운동의 역사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전제하고, "1930년대 김일성을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은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고 주장하면서 "<3·1월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체가 확고히 서고 조선혁명의 전반적문제들을 전면적이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반영한 혁명적대중정치론 잡지로서 그의 창간은 우리나라의 전반적혁명운동발전과 혁명적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¹⁾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바는 김일성은 그

* 이 研究는 1989年度 文敎部 共產圖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1) 국토통일원, <북한의 언론 출판분야 사업 총화집> 1949~1970, 서울, 국토통일원, 1974, pp. 115~116; 김영주, <言論政策과 言論構造>; 고현옥 외, <북한 사회와 구조의 변화>경남대 국동 문제 연구소, 1987, p. 343 참조. 이상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언론>, 서울, 범우사, 1979, p. 147 참조.

의 정치적 지도권을 조국 광복회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측의 설명에 따르면 1936년 5월 5일에 결성된 이 조직은 1936년 2월부터 5월에 걸쳐서 만주의 난후터우(南湖頭)에서 동강(東崗)까지의 장정중에 김일성이 창안해 낸 것이라고 한다.²⁾ 그들은 김일성이 코민테른 제 7차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통일전선의 문제를 1936년 2월의 난후터우 회의 및 1936년 5월 1일부터 15일에 걸쳐서 개최되었던 동강 회의에서 토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장정중에 10개 항목의 강령과 조국 광복회의 선언을 썼다고 한다. 그리고 1936년 5월 5일에 조국 광복회가 창설되면서 김일성은 그 위원장에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일성은 이 조직을 창설하고 그가 만든 대강령을 빠른 시일 안에 광범위한 대중 속에 확산시키기 위한 실천 방안의 하나로 잡지 <3·1월간>을 창간했다는 것이다.³⁾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신문이론을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킨 혁명적 출판물인 <3·1월간>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민족이 단합하며 조선인민의 주체인 힘에 의하여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는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복무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여 출판”된 것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에 의해 창간된 출판물은 <3·1월간>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광범한 청소년들과 근로대중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보급전전하기 위해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1928년 1월 15일에 <새날>이 창간되었다.”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전은 <새날>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2) 김경인, “조선민족해방투쟁에 있어서 조국광복회의 혁명적인 업적”, <근로자> 제174호(1960년 5월호), pp. 28~35; 전석담, “조선마르크스-레닌주의 당창건을 위한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하는 건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력사과학> 제5호(1959년 10월), pp. 1~8;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번역판)>, 서울, 화다, 1985, pp. 245~246에서 재인용.

3) 서대숙, 앞의 책, pp. 245~246.

4)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지양사 복사판 p. 682.

서 새날소년동맹의 기관지로서 창간지도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주의적 청소년신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⁵⁾ 새날 청소년동맹은 1926년 12월 15일 만주의 푸송(撫松)에서 “이미부터 교양해오시던 소학교시기의 동창생들과 무송현안의 광범한 소년들로” 김일성이 조직한 “우리 나라에서의 첫 소년혁명조직”이라고 한다.⁶⁾ 김일성은 1912년생이므로 새날 소년 동맹을 창립할 때 그의 나이는 14세였던 셈이며 주간 신문 <새날>은 그가 16세 때 창간한 것이 된다. <정치사전>은 <새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인 1926년 12월 15일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신문인 새날소년동맹의 신문 <새날>을 발간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신문 <새날>을 창간하심으로써 진정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을 가지기 위한 조선인민과 공산주의자들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⁷⁾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바와는 달리 북한은 최초의 공산주의언론으로 <새날>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공산주의 언론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한국공산주의 운동사는 <새날>이 창간되기 이전에 여러 공산주의 잡지나 신문이 간행되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921년에 이동휘의 주도로 중국의 상해에서 조직되었던 고려공산당은 한국인 사이에 공산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산(共産)>, <신생활(新生活)>, <대한독립>, <서광(曙光)>, <효종(曉鐘)>, <투보(鬪報)>와 같은 6종의 잡지와 신문을 발행했다고 한다.⁸⁾ 이들 간행물은 모

5) 위의 책, p. 682.

6) 위의 책, p. 683.

7) 위의 책, pp. 1203~1204.

8) (1922年の治安と状況) pp. 440~445; 서대숙, 앞의 책, p. 29.

두 짧은 기간 동안 발간되었으나 많은 경우 폐간 이후 복간되는 등 발행 기간이 일정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년대 초 상해의 이르쿠츠크 파는 <공산>, <화요보> 등의 좌익 잡지를 발간하였으며, 이르쿠츠크파에서는 당의 기관지로 <적기(赤旗)>를, 치타의 공산주의 운동 조직은 <동아공산신문(東亞共產新聞)>, <노동신보(勞農新報)>등을, 그리고 블라고베시첸스크에서는 <적성(赤星)>, <자유보(自由報)>와 같은 신문을 발행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1920년대 초의 중국, 만주 및 이르쿠츠크, 연해주 등 해외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여러 계파와 조직들이 그나름대로의 공산주의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잡지나 신문들은 모두 <새날>보다 창간 연대가 앞선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언론사를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중심으로 체계화시켰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역사는 모두 김일성의 항일투쟁이나 공산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김일성 이외의 공산주의 운동사는 적어도 북한에서 말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북한에서는 같은 해 10월 14일에 공산당 평남도당 기관지 <봉화(烽火)>가, 10월 15일에 평남 인민 정치 위원회 기관지 <평양민보>가 창간되었고, 11월 1일에 북조선 공산당 기관지인 <정로(正路)>가, 그리고 신민당(新民黨) 기관지 <전진(前進)>이 창간되었다. 그 뒤 1946년 9월 1일에 <정로>와 <전진>을 통합하여 <로동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평양민보>는 1946년 5월에 <민주조선>으로 제호를 바꾸었다. <로동신문>은 노동당의 기관지이며, <민주조선>은 정부의 공식 기관지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원에 소속되어 있는 북한 유일의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사’는 1946년 12월 5일에 ‘북조선통신사’로 발족하여 1948년 10월 12일에 현재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9) 서대숙, 위의 책 p. 57.

2. 언론의 개념

북한 언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언론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까닭은 북한의 언론도 기본적으로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 주장하는 바 북한의 언론은 주체의 언론으로서 김일성에 의해 새롭게 창안된 언론이라는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것이 지니는 일반적인 공산주의 언론 개념과의 차이를 검토해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언론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문은 집단적 선전자이며 선동자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라고 갈파한 레닌의 말 속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¹⁰⁾ 또한 레닌은 일찌기 그가 주도하여 발행했던 <이스크라>의 발간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신문의 사명을 밝혔다.

신문은 주로 선전과 선동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정치와 당의 문제에 관한 선전은 노동 계급 속에 광범위하게 침투되도록 해야 하고 또 노동자의 불만, 노동자의 파업, 무산 계급의 투쟁 등에 관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도하며 이들 사실로부터 명백한 결론을 발전해야 한다.¹¹⁾

레닌의 이상과 같은 신문에 대한 개념은 '당과 소비에트신문'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열렸던 제 8차 공산당 대회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즉 이 당 대회에서 "신문의 가치는 강력한 선전의 무기라는 점뿐만 아니라 조직과 선동의 도구"라는 데 있다고 결정했다.¹²⁾

이같은 일련의 어록 속에 담겨 있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신문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문은 정치 사회화의 도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문의 개념에 견주어 볼 때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은 ① 인민을 교육하고,

10) V.I. Lenin, *Collected Works*, Vol. 4,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27, p. 114.

11) James W. Markham, *Voices of Red Giants*, Ames,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p. 50.

12) 위의 책, p. 68.

②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며, ③ 인민을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동원하고, ④ 비평과 자아 비판을 자극하며, ⑤ 전쟁 상인들의 음모를 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북한 언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 어록이나 또는 북한의 각종 출판물에 나타나 있는 언론에 관한 관점들에 잘 밝혀져 있다고 하겠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7일 북조선 공산당 중앙 조직 위원회 선전부 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당보를 창간할데 대하여'라는 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이 창건된것만큼 우리는 당의 기관지인 당보를 빨리 발간하여야 하겠습니까. 당보는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옳게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광범히 선전하는 위력한 선전자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대중을 그 관철에 불러 일으키는 믿음직한 조직자입니다. 당보를 발간하여야 당원들과 인민대중에게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려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당의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투쟁을 잘해 나갈수 있습니다.당보의 이름은 《정로》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우리 당이 인민대중에게 올바른 로선을 가르쳐 주고 그 길로 대중을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당보의 이름을 《정로》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¹³⁾

또한 북한의 신문학 이론서의 하나인 <신문리론>에 의하면 “북한신문은 구체적으로 선전선동자적기능, 조직자적기능, 그리고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이러한 관점들은 언론에 대한 기본인식을 언급한 북한의 여러 문건들 가운데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언론을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혁명적 출판물의 전통을 이어받은 주체의 언론이라고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언론에 대한 개념은 소비에트 공산

13)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역임, 《김일성선집》, 서울, 대동판, 1988, pp. 290~291.

14) 배순재·라두립, <신문리론>, 동경, 재일본 조선언론출판인협회, 1967, pp. 4~5, pp. 23~25; 김영주, 앞의 글에서 재인용.

주의의 언론개념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언론은 선전 선동자이고 조직자이며 문화 교양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언론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동과 선동자로서의 언론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전일만을 놓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과 학설, 정치적전해 등을 구두 또는 출판물, 라디오 등 각종수단을 통하여 알려주며 해설하고 교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선전은 사람들을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우리당의 정책으로 교양하는 것을 말한다. 선동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담화나 보고 또는 연설같은 것을 통하여 그리고 신문, 소책자, 삐라와 격문, 라디오, 영화같은 것으로 군중에게 사상적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이상과 같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군중의 기세를 돋우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직접 발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한편 조직자로서 언론의 개념은,

신문이 담당하고 있는 사명은 한갓 정치적선전이나 선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혁명과업수행에로 그들을 직접 이끌어들이며 끝까지 관철하는 것으로,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당원들과 대중들을 한데 단합시키고 그들의 력량을 조직동원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신문의 조직자적기능이 있다.¹⁶⁾

는 것이다.

끝으로 언론의 문화 교양자적 개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건하에 있는 신문은 그의 문화교양자적 기능이 근로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의 보급이나 그들의 정치의식수준제고 그리고 정치적동맹자의 흡수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교양 그리고 풍부한 문화적 소양과 높은 기술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근로자들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¹⁷⁾

15) 배순재·라두림, 앞의 책, pp. 25~26.

16) 위의 책, pp. 31~34.

17) 위의 책, p. 36.

는 요청과 연관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을 여러 방법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문자 그대로 물건을 많이 생산하여 노나먹는 사회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적 부도 정신적 부도 모든 것이 다 풍부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판물(필자 주—언론)을 통하여 대중을 높은 공산주의 도덕품성의 소유자로, 문화수준이 높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교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¹⁸⁾

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공산주의 도덕 품성 또는 문화 수준이 높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이란 간단히 말해서 김일성 유일사상을 철저히 내면화한 이른바 주체의 인간을 말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고찰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을 철저한 '정치사회화의 도구'로 파악하면서 언론에 대해 사상성, 당성, 계급성, 인민성 및 대중성을 뚜렷이 지닐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언론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정치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같은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만족하여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빨리 높아질수록 사상혁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¹⁹⁾

이 같은 김일성의 교시에 대해 <정치사전>은 아래와 같은 설명을 달고 있다.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이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과정의 계급적내용과 사회주의제도가 선

18)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16, p. 235.

19) 김일성, 신년사(1973), p. 13.

다음시기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중요임무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사상으로 서로 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²⁰⁾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이같은 사상 혁명의 도구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일성은 당과 관련하여 “당은 사회발전법칙에 기초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당원들에게 주체적인 투쟁과업을 줍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²¹⁾ 이와 관련하여,

당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지하고 그것을 빠짐없이 구현하며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당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둘째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며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수립하여야 하며, 셋째로 당위원회의 령도에 철저히 의지하여야 한다.²²⁾

고 풀이하고 있다. 언론도 철저히 그러한 당 사업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계급성에 대해 김일성은 “로동계급은 사회의 어느 계급보다도 혁명성이 강한 가장 선진적인 계급”임을 갈파했다.²³⁾ <정치사전>은 이에 대해,

로동계급은 물질적생산의 기본력량이며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한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압박을 완전히 없애고 지구상에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20) <정치사전>, pp. 522~523.

21) <김일성선집>, 6 1965년판, p. 514.

22) <정치사전>, pp. 186~187.

23) <김일성저작선집> 3, pp. 249~250.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역사적 사명으로 한다……수령의 정도가 없이는 로동계급은 자기 자체를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고 혁명화할 수 없으며 혁명 투쟁의 옳은 전략과 전술을 가질 수 없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정치적수령과 맑스 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서만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전취할 수 있으며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다할 수 있다……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이며 그 대결을 톤톤히 꾸려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로동계급을 참말로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들이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²⁴⁾

고 풀이하고 있다. 그들의 신문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계급적 성격을 신문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사회적이메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계급사회에서는 신문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표현하였으며 또하고 있다……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조선인민들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며 국제로동운동의 위업에 성실하는 여기에 바로 우리 신문들의 계급성이 있다. 당은 계급의 전위대이며 뇌수이다. 그러므로 신문이 계급성을 띠는 것은 곧 당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⁵⁾

고 했다.

한편 “인민성의 원칙이란 우리 신문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전당의 조직적의사인 당정책을 인민대중의 것으로 만들도록 이바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중성의 원칙이란 신문사업에 광범위한 대중을 인입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치적인 단으로 만든다.”²⁶⁾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특히 여기서 유의할 것은 대중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북한 언론은 형식과 내용을 인민들의 기호와 수준과 요구에 맞게 만들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하여 출판물들은 인민 대중이 읽고 알 수 있는 통속

24) <정치사전>, pp. 318~319.

25) 배순재·라두림, 앞의 책, pp. 42~43; 김영주, 앞의 글에서 재인용.

26) 위의 책, pp. 47~49.

27) 《김일성저작집》 10, p. 297.

적인 출판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²⁷⁾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북한에서 말하는 출판물이란 우리의 경우 매스 미디어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신문, 잡지, 단행본과 같은 인쇄매체는 물론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등도 모두 포함해서 출판물이라 부르고 있다.

3. 언론의 자유

이른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4장 제53조에는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즉,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이 헌법 조항에 대한 그들의 <력사사전>의 풀이는 아래와 같다.²⁸⁾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수단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공화국공민들의 국가사회생활에서 자기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직접 말로써 제기하거나 출판물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당과 국가가 출판보도사업에 필요한 온갖 조건들을 백방으로 보장하여 주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결사의 자유는 공화국공민들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을 비롯하여 과학, 기술, 체육, 문화 등의 각 분야의 단체들을 조직하거나 그에 자유롭게 망라되어 활동할 수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대회, 열성자회의, 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장된다.”는 것이다.²⁹⁾ 그리고,

28) 사회과학 원력사연구소, <력사사전> 1,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1036~1037.

29)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편찬한 <현대조선말사전>에 의하면 공민이라 “한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을 말한다. 북한 인민의 경우 만 17세 이상이 되면 공민이 된다. <정치사전>에 따르면 “착취와 압박이 없고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우리나라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한나는 전체를 위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가일층 강화하며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복무한다. 또한 그것은 국가정치생활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조국과 인민의 원수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절대로 줄 수 없다.

고 천명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에서 보장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란 한마디로 김일성의 교시와 그것의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고, 이를 교양하며, 인민을 수령의 주위에 단단히 묶어 두기 위한 조직자로서의 구실을 수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인민이 주권을 잡고있는 나라에서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자유로운 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의 하나”라고 본다.³⁰⁾ 이 같은 자유의 보장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주권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의 손에 쥐어져있는 사회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는 참된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한다.³¹⁾ 이런 자유 역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정식화되었으며 그것을 계승한 공화국헌법에 의하여 확고히 고착되었다.”고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³²⁾ 여기서 말하는 10대 강령 속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취하고 외놈의 공포정책실현과 봉건사상 장려를 반대하며 일체 정치범을 석방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항을 북한은 언론과 출판 자유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30) <역사사건>, p. 1036.

31) 위의 책, p. 1036.

32) 위의 책, p. 1036.

라 하겠다.³³⁾

이상과 같은 언론 자유에 대한 개념은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개념과 동질적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자유에 대한 조항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제50조는,

인민의 이익에 적합하게 사회주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소 연방 시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대중 집회, 가두 행진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정치적 실현은 공공 건물, 거리 및 광장을 근로자와 그들 단체에게 제공하고 정부의 광범한 보급과 출판물,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이용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장된다.³⁴⁾

고 했다. 이러한 소련 헌법의 규정은 북한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자율을 위해 근로자 및 그 단체에 대하여 인쇄, 용지, 공공 건물, 가로, 통신수단 및 기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제조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³⁵⁾ 이런 뜻에서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언론 자유의 개념을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핵심적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⁶⁾

첫째, 어느 사회에서나 절대적 자유란 불가능하다. 레닌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 사회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의 신문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비에트 공산주의 신문은 '자본이나 출세주의 혹은 부르주아적 무정부주의자들의 개인주의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보게 된

33) 스키타피노·이정식 공저(한홍구 역),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1, 서울, 돌베개, 1986, p. 287.

34)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헌법(1977. 10. 7 개정).

35) 소련의 구헌법 제125조는 이같은 물적 토대의 보장을 명문화했었다.

36) Fred S. Siebert·Peterson T. and W. Schramm,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6, pp. 126~129.

다.

둘째,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 있는 것이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볼 때 개인들이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해야만 되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경우 그것은 공산주의 이념일 수밖에 없다.

셋째, 영국이나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볼 때 언론의 자유란 먼저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주로 의미했다. 그러나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적극적인 선이며 개인에게 보다 충실한 삶을 보장해주는 일대 협동 기업체'와 같다. 따라서 정부로부터의 자유란 대단히 소극적인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보다 적극적인 선인 국가 내에서 자유를 향유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소련에서는 국가가 반대하는 어떠한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

넷째, 소비에트 공산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란 신문 발행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인민이 이용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은 신문발행의 시설을 소유한 어떤 계급의 통제로부터도 인민이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다섯째, 소비에트 공산주의 신문 이론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의 책임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노동자들의 이익에 적합하고 또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즉 언론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이 '노동자의 이익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은 특히 당의 통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

한다면 '신문이란 뉴스의 유통을 위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당의 철저한 지도 아래 명백하게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 대중을 교육하고 그들을 조직하기 위해 자유로운 것'이라고 정의한 레닌의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 이론이나 북한의 언론 이론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은 언론이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동자인 동시에 조직자이며 교육자의 구실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도 원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오로지 언론이 할 바는 그같은 교시를 당이 구현하는데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자유로울 뿐이다. 이 같은 언론자유에 대한 개념은 전체주의 체제에서 언론이 왕권을 비판할 수 없었으며, 또한 중세 암흑 시대에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일,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금기로 삼았던 언론 자유의 한계 설정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II. 북한 언론의 기본 성격

1. 주체의 언론, 김일성주의 혁명의 언론

북한은 언론이라는 용어 대신 '출판보도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들의 '출판보도물'에 대한 기본 인식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언론 이론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언론에 대한 성격 부여는 시대적 요구, 즉, 김일성의 지도 이념의 변천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던 시기에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독자적 이념을 정립하는 과정에 따라 언론의 성격도 달리 부여되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언론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로서 북한에서의 이념적 전환의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분석의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이

념 전환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 참고될만 하다.³⁷⁾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때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주체확립의 필요성이 강조됨.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최초로 주체의 필요성을 공식 선포.

—1970년 11월, 조선 노동당 제 5차 전당 대회에서 채택한 개정 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격으로 내세움.

—1972년 12월 27일, 개정 헌법 제 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제외.

—1980년 10월 13일, 조선 노동당 제 6차 전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힘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완전히 독립함.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북한은 대체로 1970년대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 김일성 주체 사상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북한 언론의 기본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출판 보도사업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방침을 보면 오늘의 북한 언론의 기본성격을 '주체의 출판 보도물'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이전의 북한 언론과의 차별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노동당이 부여한 이같은 북한 언론의 근본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판 보도 사업에 대한 조선 노동당의 방침을 해설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언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하시고 지도하시는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다.³⁸⁾ 이 정의에 의하면 북한 언론의 근본적 성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주체'의 언론이요, 나머지 하나는 '김일성주의 혁

37) 이상우 외, <북한 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8, p. 20.

38)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5.

명'의 언론이다. 이에 대해 당의 방침 해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첫째,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하시고 지도하시는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다. 이것은 우리 당 출판물이 지난 역사적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역사적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출판보도물이며 주체시대 출판보도물이 지녀야 할 모든 면모를 갖추고 있는 혁명적 출판보도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³⁹⁾ 고 했다. 즉 북한의 언론은 철두철미하게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의 북한 언론은 과거의 언론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혁명적 출판보도물이다. 이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김일성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 출판보도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고 했다. 바로 이 점에 북한 언론의 지도이념이 무엇인가는 물론 사명이 밝혀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왜 북한의 언론은 주체의 언론이며 김일성주의 혁명적 언론이 되는 것일까? 그 까닭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시어 새롭게 창간하신 혁명적출판보도물이기 때문이다.”⁴¹⁾ 그 근거를 보면 언론이 어떠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누구에 의해 창간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성격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표징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 까닭은 누구에 의해 출판보도물이 창간되었는가에 따라 그 면모와 본질적 특성이 규정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시대를 대표하는 선진 사상의 옹호자, 전파자, 관찰자로서 시대와 혁명의 발전에 복무하는 것이므로 시대가 달라지고 시대의 요구를

39) 위의 책, p. 6.

40) 위의 책, p. 6.

41) 위의 책, pp. 6~7.

반영한 새로운 사상이 창시되면 그것을 옹호하고 전파하며 관철할 새로운 언론이 나타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에 의해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적 출판보도물을 력사발전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과 전설을 이끌어나가는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간”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언론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간되었다.”⁴²⁾ 이 같은 성격의 북한 언론은 이른바 ‘수령님’께서 이룩한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수령님께서 개척한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것을 숭고한 목적으로 삼게 된다. 이를 위해 북한 언론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⁴³⁾

이상과 같은 북한 언론의 기본적 성격은 전제주의 왕권 시대의 언론이 존재했던 양상과 동일하다. 즉 전제주의 체제에서 진리의 원천은 궁극적으로 계왕이며, 그는 무엇이 진리이며 진리가 아닌가를 가려 줄 뿐만 아니라 언론은 그가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만을 옹호하고 전파할 수 있을 뿐이었다. 북한의 언론은 김일성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므로 전제주의 체제의 언론과 같은 위상을 지니는 것이다. 김일성은 바로 진리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2. 북한 언론이 지켜야 할 근본 원칙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북한 언론의 근본적 성격과 관련하여 조선 노동당은 북한의 출판 보도물이 지켜야만 할 근본 원칙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의 원칙이다. 즉 북한의 언론은 주체의 원칙을 자기 활동의

42) 위의 책, p. 7.

43) 위의 책, p. 9, ‘여기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란 김정일을 가르키는 북한의 통용어.

근본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 활동이 주체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관통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 출판보도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언론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출판보도물이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며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역사적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⁴⁴⁾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체의 원칙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을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고 출판보도활동에서 김일성주의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게 함으로써 대중교양과 발동의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출판보도물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⁴⁵⁾는 것이다.

둘째,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진행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모든 출판보도활동에서 당중앙의 유일관리제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며 출판보도 일꾼들이 당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해나가고 당의 의도와 당이 내놓는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한마디로 말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유일적 지도밑에 모든 출판보도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⁴⁶⁾

여기서 우리는 이 원칙을 통해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나는 북한 언론은 철저하게 당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언론을 통한 김정일 후계 체제의 공고화 작업이라 하겠다. 이러한 양면성의 의도는 왜 북한 언론이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의 제시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즉 이 원칙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출판보도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충성도

44) 위의 책, p.22.

45) 위의 책, p.23.

‘대를 이어’ 우러러 모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그러면 출판 보도 활동을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당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즉 “우선 모든 출판보도일꾼들이 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는 뜻에서 “《로동신문》을 당의 지시대로만 편집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으며, “다른 곳의 말을 듣고 당보를 편집하여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⁴⁸⁾ 《로동신문》은 조선 노동당의 기관지이며, 따라서 모든 북한 언론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강력한 당의 통제력 아래에 장악해 두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신문들이 이를 따라 제작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 하겠다.

셋째,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 “종자를 바로 쥐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기본핵을 틀어잡는다는 것을 말하며 속도전을 벌인다는 것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최단기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한다는 것을 말한다.”⁴⁹⁾ 여기서 말하는 종자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기사와 편집물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력, 즉 기사와 편집물의 내용적 요소를 이루는 주제와 사상, 소재를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사상적 알맹이’인 것이다. 이 ‘사상적 알맹이’는 바로 주제 사상, 김일성주의이며 당의 유일 사상 체제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겠다. 이 원칙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와 당의 정책적 요구를 글에 가장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며……위대한 수령님과 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와 당의 정책적 요구를 글에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한다.”⁵⁰⁾는 것이다. 그러면

46) 위의 책, p. 25.

47) 위의 책, pp. 27~28.

48) 위의 책, p. 28.

49) 위의 책, p. 13.

50) 위의 책, p. 13.

이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 '수령'의 교시와 '지도자 동지'의 지시, 그리고 그것의 구현인 당의 노선과 방침을 깊이 연구하여 채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체 사상, 김일성 유일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종자를 켜 다음에는 "무조건 속도전을 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모든 출판 보도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높은 혁명적 열의를 발휘하도록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출판 보도 일꾼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조직 지도사업을 '안반침'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Ⅲ. 북한 언론의 사명과 기능

출판 보도 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에 따르면 김일성주의 출판 보도물의 기본 사명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며 나아가서 주체 위업의 세계사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다."⁵¹⁾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같이 요약된 기본사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그들의 진술에 따라 옮겨 보기로 한다..

① 우리 당 출판 보도물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혁명적세계관으로 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②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또한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소를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③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기본사명은 결국 우리 나라에서와 전세계에서 주체위

51) 위의 책, pp. 14~20.

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 사명을 다하기 위한 북한 언론의 기본 임무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첫째가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 언론이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다. 그것은 ① 모든 사회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② 대회의 모든 성원들 속에서 “김일성주의 교양과 당정책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전결히 옹호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끊임없이 교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벌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④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갖 계급적 적대 세력들과 착취 제도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소를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북한 언론은 해야만 한다고 교시하고 있다. ①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하며 특히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②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기술혁명, 문화혁명 방침을 널리 해설하고 그 관철로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셋째,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세계사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북한 언론은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남조선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방침과 자주적 조국통일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남조선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며 미일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에 전체 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와 같은 북한 언론에 부과된 임무에서 우리는 북한의 남북 통일 전략과 전술이 모두 남조선 혁명, 즉 남한에서의 김일성 유일 사상과 유일 체제로의 혁명에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게 된다. 북한 언론에 부과된 주요 임무의 하나가 바로 김일성주의로 남한 혁명을 부추기는 선전과 선동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